

◆ 김재희 변호사와 함께 제작한 카드뉴스입니다 ◆



성 착취 목적의 유인 행위, 이제는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!



학생, 게임 아이템 줄 테니 만날까?

몸매가 너무 좋은데, 촬영해서 보내줄래?

고액 알바 소개해 줄게.
몸 사진 보내고 주소 알려줄 수 있어?

불법촬영물을 제작하는 등 성 착취를 목적으로
온라인 공간에서 아동·청소년을 불러내거나 유인하는 것,

처벌 근거



지금까지는 이런 행위를
법적으로 처벌할 근거가 없었습니다.

그러나 N번방 사건 이후 1년,
이제는 이와 같은 **‘그루밍’** 단계에서도
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.

일명 **‘온라인 그루밍 처벌법’**이
올해(9월 24일)부터 시행되기 때문인데요.



그루밍(grooming)이란?

'마부가 말을 빗질하고 꾸민다'는
것에서 유래한 용어

한 번 만날까?

즉, 온라인 그루밍은

가해자들이 **성 착취를 목적으로**

게임, 메신저 등의 일상적인

온라인 매체를 통해 피해자에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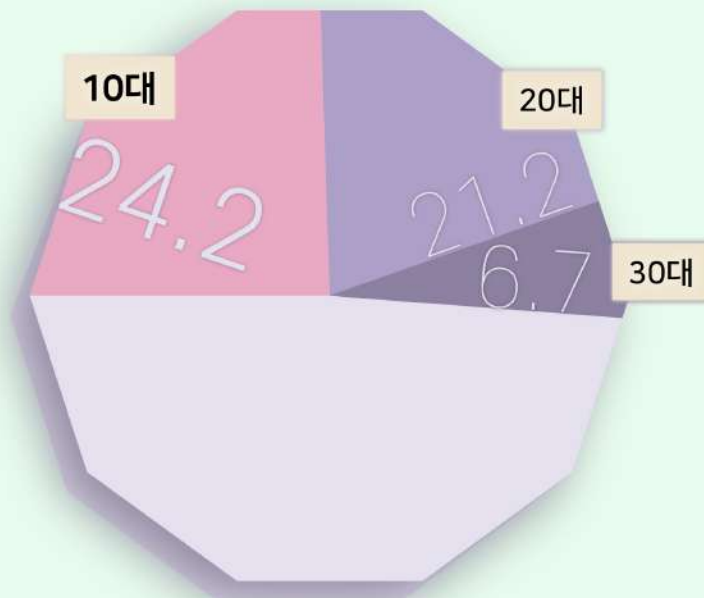
접근해 호감을 얻는 등

심리적으로 지배가 가능하도록

만드는 행위를 뜻하는 것이죠.



온라인 그루밍을 통해 유입되는 디지털 성폭력 피해자의 대다수는 미성년자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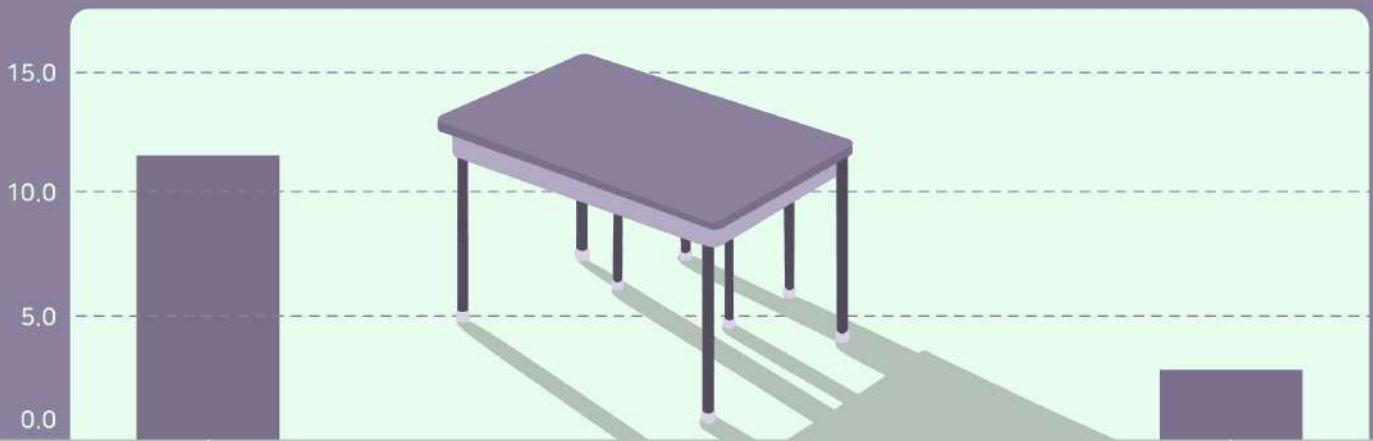
2020년에 발표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통계 중
10대는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.



출처 : 2020년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운영 실적(2021), 여성가족부

여성가족부에서
전국의 중고등학생 6천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,

지난 3년 간



온라인에서

원치 않은 성적 유인 피해를
당한 경험 비율은
전체의 **11.1%**

만남 유인 피해까지
경험한 비율은
전체의 **2.7%**에
달했습니다.

출처 : 2019년 성매매 실태조사(2020), 여성가족부

이러한 성적 유인의 상위 3개 경로는


#인스턴트 메신저

28.1%



#SNS

27.8%



#인터넷 게임

14.3%




순이었으며

유인자는 대부분

#온라인에서 처음 만난 관계

76.9%



로 나타났습니다.

출처 : 2019년 성매매 실태조사(2020), 여성가족부

일상적인 온라인 그루밍 위험의 심각성에 따라

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
법률 일부개정안,
일명 **온라인 그루밍 처벌법**이



2021년 2월 **국회 본회의**를 통과하게 되었습니다.

2021년 9월 24일부터

성인이 아동 및 청소년에게
성적 대화나 성적 행위 유인, 권유 등을 할 경우

3_년 3000_{만 원}

3년 이하 징역 또는
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
처해질 수 있습니다.

개정 전 : '성 구매' 목적으로 미성년자를
불러내는 행위만 처벌

법적 처벌 강화

개정 후

- 1 온라인에서 아동·청소년에게 성적 행위를
하도록 **유인**하거나 **권유**하는 행위
- 2 아동·청소년에게 **성적 욕망, 수치심,
혐오감을 유발**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하는
행위
- 3 아동·청소년을 이 같은 **대화에 참여시키는
행위 모두 처벌**

아동·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고
실질적인 증거를 확보할 수 있도록 **경찰이 신분을 위장하여**
수사할 수 있는 '**수사 특례 규정**'도 마련하였습니다.



온라인 잠복 수사를 통해 적극적으로 가해자를 찾아내는
함정수사가 가능해진 것입니다.

처벌강화



이 밖에도

아동·청소년의 성을 구매하기 위해 권유, 유인하는 경우

~~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(개정 전)~~

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(개정 후)

(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13조 2항)

아동·청소년 대상 성 착취물

제작 수입 및 수출죄에 대한 **공소시효 폐지**



공소시효 폐지

**“법률의 무지는 용서받지 못 한다”라는 법언처럼
이제는 “몰랐다”, 또는 “모르겠지” 하는 변명으로
더 이상 범죄 사실을 피할 수 없습니다.**



지금까지 살펴본 **아동·청소년 성보호**에 관한
법률 개정안에 대해 **함께 이야기를 나눠봅시다!**



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

KOREAN INSTITUTE FOR GENDER EQUALITY PROMOTION AND EDUCATION